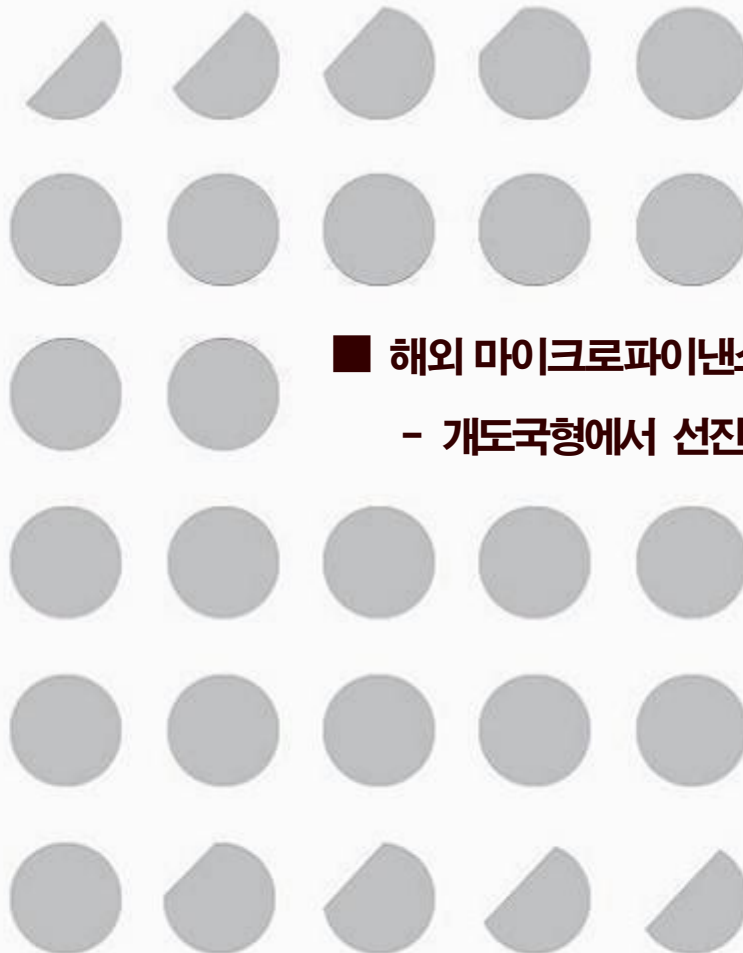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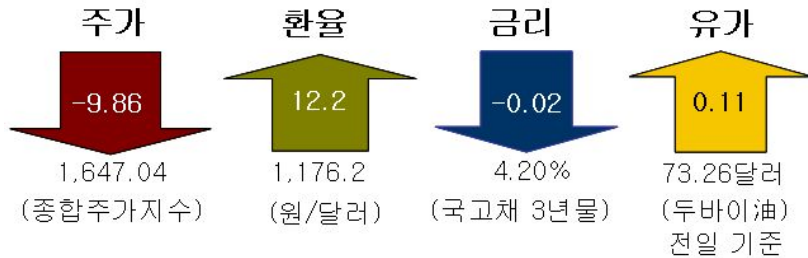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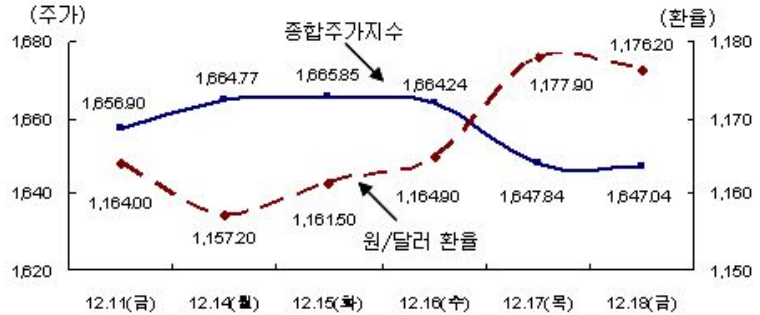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와 시사점
-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진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1~12.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사례와 시사점	
-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진화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Executive Summary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와 시사점

-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진화

(마이크로파이낸스 필요성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금융 수요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소액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미소금융을 2009년 12월 시작하였다.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현황) 마이크로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수행 기관, 총자산 및 대출수혜자가 급증하였다. 2009년 10월 현재 113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총 1,620여개 이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총대출 규모는 1996년 1.3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말 기준 383.4억 달러로 약 30배 성장하였다. 대출자 규모도 1997년 300만 명에서 2008년말 기준 7,400만 명 규모로 급증하였다.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미국·유럽의 선진국형과 아시아·중남미의 개도국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을 비교하면 첫째,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선진국형은 소액신용대출과 함께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개도국형은 소액신용대출에 집중한다. 둘째, 자원 조달은 선진국이 공공부문 및 민간 기부금 등의 외부에 의존하나 개도국형은 초기 외부자원 의존에서 최근에는 상업은행 형태로 발전하거나 대출자원을 국제화, 다변화하고 있다. 셋째, 대출 대상은 선진국이 실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면, 개도국은 저소득 빈곤층 중 여성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 이외에도 선진국형은 이자율 상한제로 인한 낮은 대출이자율 유지, 교육 등의 고비용 체제 및 낮은 대출 회수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형의 경우 높은 대출이자율로 상업성을 구현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수익성이 입증되면서 해외선진금융기관들도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ABN AMRO, Citigroup, HSBC, BOA 등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를 실천하는 한편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과 발전과제)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민간단체에서 시작되었으나 2008년말 기준으로 6,800명에게 지원되었다. 이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잠재고객이 816만 명임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2조원을 조성하여 2000~2009년 7월까지 조성된 1,480억 원에 비해 13배 이상 대출자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점진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속적인 자원 확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미소금융의 지속성을 위해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소액대출 운영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지원시 소액신용대출과 교육·경영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와 시사점 >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이후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는 크게 발전 · 2009년 10월 현재 113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총 1,620여개의 기관이 활동 · 총대출규모는 1996년 1.3억달러에서 2008년말 383.4억 달러로 확대 · 대출자규모도 1997년 300만명에서 2008년말 7,400만명으로 급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며 우리나라도 12월부터 미소금융을 실시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		
	선진국형	개도국형
서비스 제공	소액신용대출과 교육·경영 컨설팅을 함께 제공	소액신용대출에 집중
재원조달	공공부문의 지원과 민간기부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	외부재원 의존에서 상업은행 형태로 발전, 재원의 국제화와 다변화가 모색
대출대상	실업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빈곤층, 특히 여성
특성	-이자율 상한제로 이자율 제한 -교육 등의 고비용 체제 -낮은 대출 회수율	-높은 대출이자율로 상업성 구현 -소액대출 기관 간 경쟁 심화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과 발전과제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이후 시민단체에서 시작, 2009년 12월 미소금융으로 확대 · 국내 소액신용대출은 2008년말 기준, 총인구대비 0.0014%, GDP대비 0.005%로 지원규모가 크지 않음 · 미소금융 시행으로 대출채원 조성규모는 '00~'09년 쯤까지 10년간 1,483억원에서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13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점진적 진화가 필요 · 첫째,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속적인 재원 지원이 중요 · 둘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함 · 셋째, 미소금융의 지속성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정착이 필요함 · 넷째, 효과적인 소액대출 운영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섯째, 소액신용대출과 경영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 방식이 필요 	

1.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필요성 확대

○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¹⁾의 의미: UN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무담보 소액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여타 지원 활동을 제공하여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
- 전세계 개도국에서 1,600여개 이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 MFI)들이 NGO,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출자를 받아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대출과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소액신용대출 사업에서 시작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2000년 이후 대형화, 상업화, 국제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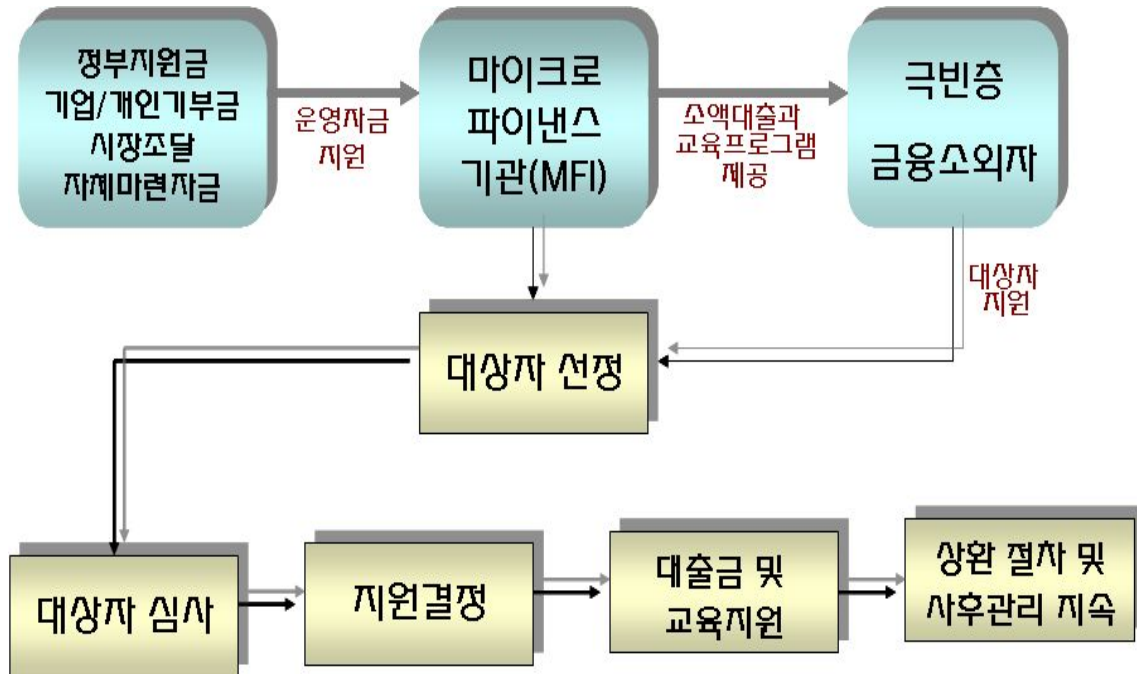
-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Yunus교수의 주도로 농촌 빈민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그라민(Grameen) 은행²⁾에서 시작
- 이후 중남미, 인도 등으로 확산된 이후,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남미 ACCION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로 확대
- UN에서도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선포하여 금융 또는 비금융 부문을 통해 빈곤계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노력
-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형화, 상업화, 국제화되고 있음
- 1980년대 NGO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정식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저소득 소액대출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지속
- 1990년대에는 소액 단기대출을 넘어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사업 수행도 개별국가 수준에서 국제적 범위로 확장
-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후진국 원조의 한 방식과 상업성을 극대화하여 사모펀드 등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자금공급원을 확보

1)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액대출을 시작한 NGO형과 조합원 출자금·예금에 대출재원을 의존하여 조합원에게 소액만을 대출하는 조합형 및 일반은행처럼 예금에 약 75% 이상의 대출재원을 의존하여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조정하는 은행형으로 구분됨(금감원, 금융감독정보 제 2009-38호).

2) 2009년 10월 현재,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은 전체 794만 명(이중 97%가 여성)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전체에 2,560여개의 지점을 운영.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증가와 한계가구의 증가로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G20 정상회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
 - G20는 빈곤퇴치와 금융통합(Financial Inclusion)을 이루기 위해서 마이크로파이낸스 확대를 통해 금융소외 빈곤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
- 세계 각국에서도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를 발표
 - EU는 2009년 7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기업 및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프로그레스 소액대출 기관(Progress Microcredit Facility) 도입을 제안하고 2010년부터 시행 예정
 - 중국은 2007년말 금융기관이 농촌지역에서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하면서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에게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소기업 및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
- 우리 정부도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금융 수요 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
 - 정부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수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으로 확대 개편하여 2009년 12월부터 서민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시행하기로 발표
 - 재원 마련은 재정지원 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사업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키로 함
 - 아울러, 서민들의 이용 편이를 위해 미소금융사업 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
 - 대출대상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이며 금리는 시장금리(현행 5% 수준) 이하로 대출한도는 500만원~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방식임
 - * 미소금융이란, 아름다운 소액대출을 의미하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통칭하여 명명함

< 마이크로파이낸스 소액대출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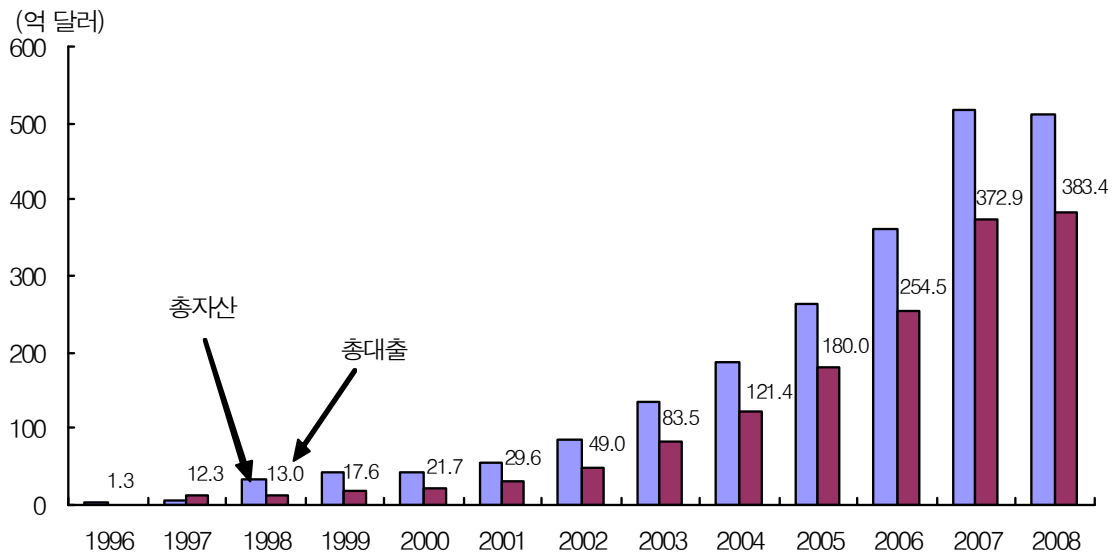
2.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현황

○ 2000년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총자산 및 대출수혜자가 급증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이 지속적으로 확대
 - 2009년 11월 현재 113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총 1,62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MFI)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도 개도국 지원 및 자국의 실업자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MFI는 증가할 것임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의 총대출 규모도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남
 - 총대출 규모는 1996년 1.3억 달러에서 2000년 21.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8년말 현재 383.4억 달러로 확대됨

< 전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총자산, 총대출 규모 추이 >



자료 : THE MIX(Microfinance Institution Exchange).

주 :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과 MIX에 보고되지 않는 나라는 제외됨.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서 대출받는 대출자도 2000년 이후 빠르게 급증
 - 1997년 전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자는 약 3백만 명에서 2008년 말 기준 7천 4백만명 규모로 확대됨
 - 이 중 개도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 수혜자인 여성 대출자 규모도 1997년 약 40만명 규모에서 2008년말 기준 5천만명 규모 증가하였고, 동기간 총 대출자 중 여성 대출자의 비율도 13% 수준에서 67%로 확대됨

< 전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총 대출자, 총 여성 대출자 추이 >

(단위 : 백만 명)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총 대출자	3.1	10.9	25.4	48.5	59.0	71	74.6
총 여성 대출자	0.4 (13%)	6.7 (62%)	12.5 (49%)	31.9 (66%)	39.6 (67%)	51.4 (72%)	50.2 (67%)

자료 : THE MIX(Microfinance Institution Exchange).

주 : ()내는 총대출자 중 총 여성 대출자의 비율임.

3.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

① 선진국

○ 미국

- 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1년 저소득층 자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ACCION USA 등이 설립
 - 클린턴 행정부(1992년)는 소액대출(Microcredit)과 근로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소액금융 프로그램의 안정성 등을 제고시킴
 - 특히, 미국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인 지역재투자법(CRA)³⁾ 및 CDFI 기금 등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에 기여
- 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회적 빈곤층에 대해 소액대출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
 - 미국에서는 소액대출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나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했던 양질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사회적 빈곤층에 제공
 - 빈곤층에 자활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이나 컨설팅 서비스,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에 목적을 둔 대출 집중 및 극빈층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이 제공
- Citigroup과 BOA((Bank of America)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소액대출 사업에 진출하고 이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Citigroup은 저신용층에 무담보소액대출, 싼 수수료 혹은 무료의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에 투자하여 이미 20여 개국⁴⁾에 진출
 -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BOA도 저소득층에 직접대출 또는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출과 투자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신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을 확대
 - 특히, BOA는 2004년 141.4억 달러의 순이익 중 40% 이상을 CRA관련 지역개발금융에서 얻으면서, 2005년부터 10년간 7,500억 달러를 지역개발금융에 투자

3) CRA(지역재투자법), p.9 참조.

4) 특히, 멕시코에 자회사 Barnamex를 통해 4,400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지역 MFI와 소액 신용대출업무에 진출하여 이미 30만 명 이상에게 신용을 제공하였음.

< 미국 주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개요 >

기관	특징
ACCION	-1961년 설립되어 1973년 브라질에서 첫 지원 -미국 외 중남미 아프리카 등 18개국에 진출 -대출대상: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자 -대출규모: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5,000~50,000달러 -대출이자: 11~18%, 3~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이후에도 경영지원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운영재정: 정부지원금(20%), 지역내 민간기부금(50%), 자체 마련자금(30%)
Opportunity International	-1971년 설립된 미국의 NGO로 197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시작 -2007년말 현재 전세계 100만 명 이상에게 7억 달러 이상을 대출 -대출대상: 영세자영업자 이거나 창업 준비자로 15~40명으로 구성된 Trust Group에 공동대출(50~500달러 수준 신청가능) -대출규모: 1인당 평균 144달러 -대출이자: 개개인마다 상이하나 사채보다는 낮은 수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운영재정: 자본시장 활용(60%), 개인기부금(20%), 정부지원금(20%)

자료 : 소액서민금융재단, 한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9.4.

○ EU

- EU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도입 이후 발전 속도가 더뎠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 및 양극화 심화로 이 부문에 대한 확대 추진 중
 -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18세기부터 협동조합이 발달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유사한 금융지원이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성장세를 보여 왔음
 - 반면, 금융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금융소외계층의 비중이 높은 동유럽은 1990년대 마이크로파이낸스 도입 이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
 - EU 내 높은 실업률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실업자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EU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
 - 2007년 EU회원국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JASMINE(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프로그램 도입되었고, 유럽투자은행과 유럽투자펀드를 통해 제공
 - 프랑스 : 유럽에서 가장 마이크로크레딧이 활발한 국가로 1988년 설립된 ADIE (경제권리연합)에서 총괄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저리의 소액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리

- 영국 : 1997년부터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New Deal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GRF(Glasgow Regeneration Fund)를 설립하였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임
- ABN AMRO와 HSBC 등이 가장 활발한 EU의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개도국 금융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ABN AMRO는 브라질과 인도에서 지역 MFI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소액금융사업 및 경영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HSBC도 인도에서 7개의 MFI들과 함께 7만 가구에 총 550만 US달러의 신용대출을 제공하였고 멕시코에서는 1400여개가 넘는 HSBC 지점을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대출 및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MFI와 협조
 - 아울러, HSBC는 중국에서도 빈곤층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② 개도국

○ 방글라데시

- 절대빈곤의 여성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통해 자립 지원
 - 취약한 경제구조와 높은 실업률로 절대 빈곤율 50%에 이르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1976년 그라민 은행을 시작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활성화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소자본 창업대출(건당 100달러 수준)을 제공하며, 5명 단위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Peer Based System)
 - 이에 따라,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연대보증에 기반한 공동대출로 대출 회수율이 98%에 달하며, 대출 이후에는 교육과 지원서비스에 참여가 필요 조건임

○ 인도

- 은행을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재원 조달이 국제화 및 다원화되고 있음

- 인도는 은행과 NGO들의 공조체계로 최저소득기준(약 430달러) 이하의 빈곤층과 소외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확대하면서 발전
- 최근에는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도 소액대출 전문기관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소액대출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기준 은행의 소액대출에 대한 자금제공 규모는 약 25.2억 달러에 달하였고, 최대 소액대출 전문기관인 SKS Microfinance기관은 2009년 10월 초에 2억 5,000만 달러의 신규주식상장을 추진함

○ 중국

- 정부주도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형태로 발전
- 중국에서는 1980년대 국제기구가 빈곤층과 농촌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나, 1998년 이후 중앙은행의 저리융자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RCC(Rural Credit Cooperatives)⁵⁾를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
- RCC는 대출자들의 높은 신용리스크 등으로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

- 상업적 원리를 중시하여 재정자립 전통이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NGO형태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음
- 멕시코의 Compartamos Banco⁶⁾는 남미 최대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1990년 NGO단체로 시작되었으나 2006년 은행으로 변경
- 페루의 Mibanco, 볼리비아의 Bancosol도 NGO단체에서 제도권 기관으로 변화, 특히 이 두 기관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활발한데, 칠레는 중소기업을 위한 Credit Program을 멕시코도 경제부처에서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실시

5) RCC는 2008년 현재 대출규모가 3,700억 위엔, 약 7,000만의 농가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6) 최저이율이 79%로 고금리이나 2008년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도 450달러 수준이며,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중 최초로 기업을 공개하며 상업성을 입증.

< 참고 > 미국의 저소득층 금융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 지역재투자법(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확대 지원법으로 은행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에 대출을 하지 않는 레드라이닝 (Red Lining)이라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1977년 시작
 - 연방 감독기관인 FRB, FDIC, OCC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CRA관련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허가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CRA 도입 이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에 대한 대출비중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의 자금수요 충족과 발전에 기여
- 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 CDFI는 상업적 금융기관이 은행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금융배제 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역개발은행 (CBD), 지역개발신협(CDCA), 지역개발융자기금(CDLF) 등이 이에 해당
 - 미국의 저소득층 혹은 이들을 위한 기관에게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500개 이상의 CDFI펀드가 23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
-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Fund)
 -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리글법을 통해 시작된 기금으로 정부 지분100%의 공사 형태로 출범하였고, CDFI 프로그램, BEA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시중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지역사회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대출심사 후 지원
- 은행활동지원(BEA: Banking Enterprise Award) 프로그램
 - 대형은행 등에 CDFI 투자나 낙후지역에 대한 직접대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6개월간의 낙후지역 투자 증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공
- 중소기업청융자(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육성 대출 프로그램으로 연방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며, SBA 대출은 통상 프라임 이자율에 2.75%를 더한 수차에서 이자율이 결정되어 운용

③ 선진국, 개도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국내 미소금융의 비교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소액대출과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함께 서비스 하는 선진국형과 소액대출에 집중하지만 재원의 다양화 및 자체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입증한 개도국형으로 구분

- (서비스 제공) 개도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에 집중하나, 선진국은 자영업자 시장 진출이 힘든 만큼 소액대출과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
 - 미소금융은 개도국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에 집중
- (재원조달)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지원과 민간 기부금 등 외부 재원 조달에 의존하나, 개도국은 주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상업은행 형태로 발전하면서 자체 재원조달 확대 및 재원을 다양화 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재원 조달은 선진국형과 유사하나, 재정지원 없이 민간기부금과 휴면예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계획임
- (대출대상자) 선진국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창업자에게 개도국은 저소득 빈곤층 중 특히 여성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음
 - 미소금융은 선진국형과 유사하게 저소득 자영업자(신용 7등급 이하)를 지원하나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 공동대출 및 사회적 기업⁷⁾도 지원
- (특성) 선진국은 이자율 상한제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훈련비용 등의 고비용 체제와 낮은 대출 회수율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후진국은 높은 대출이자율 등으로 상업성이 대두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경쟁이 심화
 - 미소금융은 정부 주도로 시작되고, 낮은 대출이자율, 민간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추진·운영할 계획
 - 이외에도 6대 그룹(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 SK, 포스코, 롯데)과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이 독자적인 미소금융 지점을 운영을 추진

7)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육성기업법」 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 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함.

< 선진국과 개도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미소금융 비교 >

	미국·유럽의 선진국형	아시아·중남미의 개도국형	미소금융
서비스 내용	소액신용대출과 더불어 창업훈련, 교육 등 컨 설팅서비스 함께 제공	소액신용대출에 집중	소액신용대출에 집중
자원 조달	공공부문의 지원 및 민 간 기부금 등의 외부재 원에 의존	외부재원에 의존에서 최 근에는 상업은행 형태로 발전하며 자체 자원조달 확대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민간 기부금에만 의존
대출 대상	실업자 및 저소득 자영 업자	저소득 빈곤층, 특히 여성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업
특성	-이자율 상한제 등으로 이자율 제한 -창업훈련비용 등 고비용 체제 -낮은 대출 회수율	-높은 대출이자율 등으로 상업성 구현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출방식을 활용 -재원이 국제화, 다양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경쟁 강화	- 4~5%대의 낮은 대출이자율 -영세자영업자 이외에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 사회적 기업 지원도 포함 -자원봉사자 위주의 운영
주요 MFI	ACCION USA GRF(영국) ADIE(프랑스) 외	그라민 은행(방글라데시) BRI(인도네시아) ACCION(브라질)	미소금융 중앙재단 하 부에 200~300개의 지 역네트워크 조성

주 : BRI(Bank Rakyat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정부소유 개발은행의 일부 부서가 민영화되어 대안
금융전문 은행으로 상업성에 입각하여 대안금융사업을 전개.

4.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 현황과 발전과제

○ (현황)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 필요성은 증가

- 2000년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소액대출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저소득층 소액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
 - 2000년 이후 (사)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이 민간기부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에 창업자금을 지원, 현재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
 - 특히, 2008년 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설립되면서 2년 만에 총 소액대출 조성 재원의 1/3을 차지하며 확대
-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의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 평가 7~10등급인 금융소외자의 수는 2007년말 766.6만 명에서 2008년말에는 816.1만 명으로 50만 명이 급증
 - 반면,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8년에 금융권별 저신용층에 대한 가계대출은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저축은행 2.2% 등이 줄어들
 -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실업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는 2008년말대비 20만 명이 폐업 등으로 감소
- 그러나, 국내 소액신용대출 시장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소액신용대출 지원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총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에 불과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잠재적 고객이 816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크지 않은 규모임
 - 특히, 소액대출의 재원도 정부 및 휴면예금 등에만 의존하여 '00~'09년 7월까지 총 1,483억 원을 조성. 그러나,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국내 소액대출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

(단위 : 억원)

재원출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간기부금	512	343
재정(복지부, 희망키움뱅크)	410	80
휴면예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자체(서울시, 희망드림뱅크)	60	12
합계	1,483	772

자료 : 금감원, 금융감독정보(제 2009-38호), 2009.9.18~24.

주 : 1) '00~'09.7월까지의 실적임.

2) 민간기부금은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 금액 중 재정,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순수 추정규모임.

○ (발전 과제) 국내 미소금융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 운영의 전문인력 확보,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 정착 및 기존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선진국형 서비스 유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 첫째,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및 지속적인 재원 지원이 확보되어야 함
 - 선진국형의 대부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창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따른 높은 운용비용과 신용리스크 및 이자율 상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 요소임
 -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금융기관 및 개인 등 사회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도국 재원 조달 방식과 같이 재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미소금융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대출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심사를 통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 아울러, 대출자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함
- 특히, 국내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나 소액대출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함

- 셋째, 미소금융의 지속성을 위해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자립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익성, 건전성 등 재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실제로, 그라민 은행은 98%의 대출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지점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노력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기관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항목과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넷째, 효과적인 소액대출 운영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수익성을 창출을 통해 금융기관의 진출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
 - 은행의 자회사나 기존 서민금융기관인 내에 특별계정 방식으로 운용
 - 이 경우, 기존금융기관의 전국 지점망을 이용하여 금융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심사 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실제로, 해외 선진금융기관들은 소액대출 부문의 수익성이 입증되면서 투자 지역과 자금을 확대하고 있음

- 다섯째, 우리나라의 영세자영업자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저소득층 지원 시 소액신용대출과 교육·경영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함
 - 영세자영업자의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소액대출과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 및 경영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함

조호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현석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8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2.8	-2.7
EU	2.7	0.7	0.7	-0.3	-0.4	-1.9	-2.4	-0.2	0.4	-4.2
일본	2.4	-1.2	5.6	-8.1	-4.0	-10.2	-11.9	2.7	1.3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9	0.2

주 1) : 2008, 2009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 11일	12월 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55	3.48	-0.07%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89.27	89.78	0.51¥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625	1.4331	-0.0294\$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472	10,308	-164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108	10,164	5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22	4.19	-0.03%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64.0	1,176.2	12.2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56.9	1,647.0	-9.9p

주 : 12월 18일 해외 지표는 전일(12월 17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 11일	12월 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69.79	72.68	2.89\$
	Dubai	36.45	46.80	71.85	65.33	73.15	73.26	0.11\$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70.86	276.13	5.2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